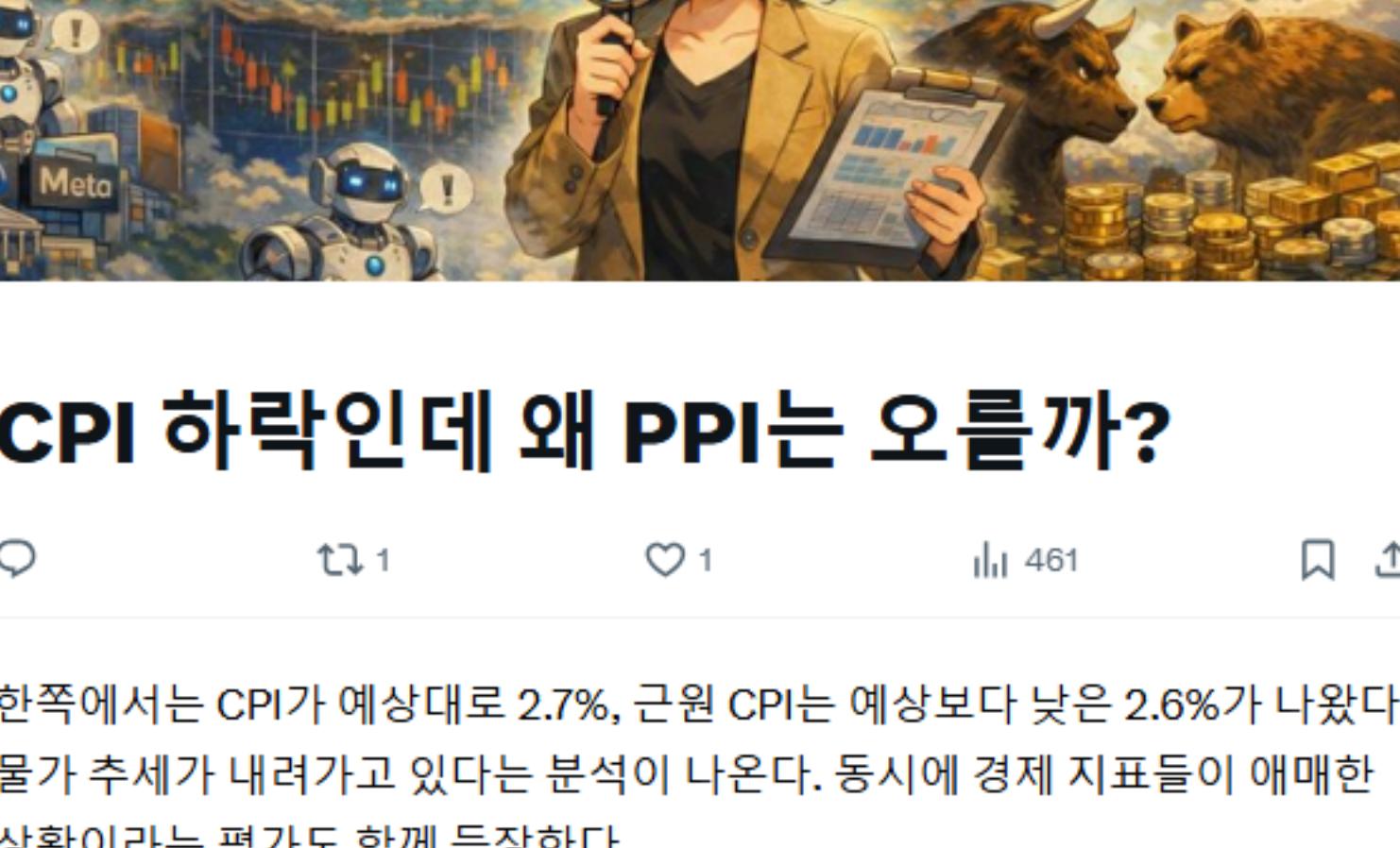


 미누고 @iamminuoco ...

...



CPI 하락인데 왜 PPI는 오를까?

Comment 1 Heart 1 461 Views Up ↑ Down ↓

한편에서는 CPI가 예상대로 2.7%, 근원 CPI는 예상보다 낮은 2.6%가 나왔다. 물가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경제 지표들이 애매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함께 등장한다.

실업률 4.4%, 고용 50만명,
생산성 4.9%, 생산비용 -1.9%, 시간당 임금 3.8%.

그런데 11월 PPI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소식이 터졌다.

원자재 → 공장 → 도매 → 소비자



PPI → CPI 흐름

CPI =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

사람(소비자)이 실제로 돈 내고 사는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지표

PPI =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물가지수)

기업이 물건을 만들거나 팔 때 받는 가격, 즉 '원가·출고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지표

트럼프와 케빈 하셋의 밭언들이 동시에 쟁아진다.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라면 시장이 올라야 한다"

"지금은 AI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가는 국면이다"

"과거 인터넷 열풍 때도 그린스펀은 금리를 인하했다"

하셋: AI 기반 생산성 향상은 1990년대 호황을 떠올리게 하는 변혁적인 경제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

2025년 12월 9일 오후 2시 33분 (GMT+0)


X Q In 6

- 케빈 하셋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인공지능 혁명이 1990년대의 변혁기를 반영하며, 내년 생산성 증가율이 4%를 넘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그는 18조 달러 규모의 일본 지출과 세계 개혁에 힘입어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2026년 초에 4% 이상의 견실한 경제 성장을 예상합니다.
- 하셋은 디플레이션 추세와 1990년대 IT 붐 당시 멜론 그린스펀의 원화적 정책과의 유사점을 근거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주장합니다.

설명은 가능한데, 이상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트럼프와 케빈 하셋의 밭언들이 동시에 쟁아진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해서 커뮤니티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나선다.

아마존은 500억 달러 정부 발주용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메타는 트럼프 출신 피월 매코믹을 사장으로 임명한다.

한편에서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프레임이 계속 강조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해서 커뮤니티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나선다.

아마존은 500억 달러 정부 발주용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메타는 트럼프 출신 피월 매코믹을 사장으로 임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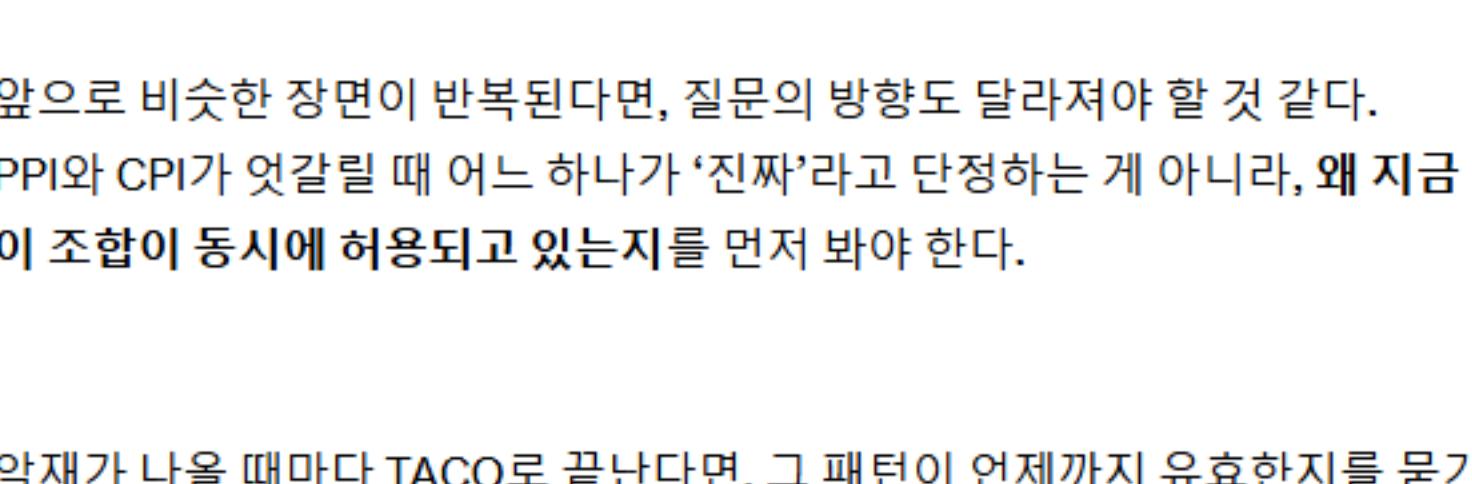
TACO =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에 물러난다.

- 정책비용 계산(불가 오르나? 유권자 방응은? 금융시장 혼들리나?)
- 후퇴 또는 완화(연기, 예외, 협상 재개)
- 시장은 3번과 4번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 함.

동시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한다. 11월 소매판매 0.6% 증가, JP모건 대출 전년 대비 9% 증가, 기준주택 판매 3년 만에 최대폭 증가.

SOFR 금리도 흥미로운 신호를 보낸다. SOFR-IORB가 0 이하로 내려왔다. 단기 달러 유동성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의미라고 한다.



SOFR =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미국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담보부 조단기 자금 금리'

IORR = Interest on Reserve Balances

은이 금보다 월씬 더 많이 폭등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마지막 투기 세력의 폭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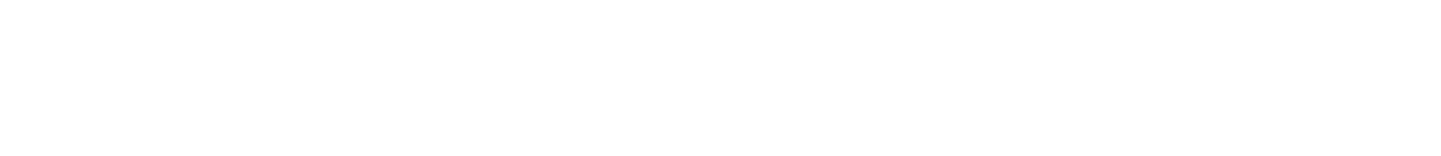
과거 코로나, 2016년, 2012년 사이클에서도 경제가 침체에서 성장으로 바뀌는 마지막 시기에 은이 급등했다가 폭락했다는 분석이다.

AI 쪽에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진다.

구글이 엔비디아 블랙웰 플랫폼을 도입했다.

↳ 일파백·엔비디아 동맹 강화...구글, '블랙웰' 기반 AI 인프라 도입

By Ananya Gairola — 2026년 01월 14일 — 기타 시장 — 3 분 읽기



알파벳(NASDAQ:GOOG)(NASDAQ:GOOGL)은 엔비디아(NASDAQ:NVDA)와 장기적 협력 관계를 확대했다. 구글 클라우드

구글 Gemini Personal Intelligence가 베타로 출시됐다. "나를 깊이 이해하는 AI"라는 컨셉이다. H100 임대료가 다시 치솟고 있고, 토큰 사용량도 최근 2주간 급격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장면들이 겹쳐질수록, 하나의 서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모든 현상을 "유동성 차오름 + AI 성장 기대 + 정부-기업 협력"이라는 틀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 해석이 너무 매끄럽지 않나?

PPI 상승과 CPI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사태가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TACO되는 현상, 빅테크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협력한다는 현상.

데이터 해석 방식도 마찬가지다.

같은 지표라도 누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앞으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면, 질문의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

PPI와 CPI가 엇갈릴 때 어느 하나가 '진짜'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조합이 동시에 허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회복 신호들이 실제 경제의 변화인지, 아니면 모두가 같은 지표만 골라 읽으면서 만들어진 안정감인지, 그 경계를 정말 구분하고 있는지 말이다.

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
[Upgrade to Premium](#)

4:24 PM · Jan 15, 2026 · 461 Views

Comment 1 Heart 1 461 Views Up ↑ Down ↓

악재가 나올 때마다 TACO로 끝난다면, 그 패턴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묻기보다 시장이 왜 그 후퇴를 미리 전제하고 움직이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회복 신호들이 실제 경제의 변화인지, 아니면 모두가 같은 지표만 골라 읽으면서 만들어진 안정감인지, 그 경계를 정말 구분하고 있는지 말이다.

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
[Upgrade to Premium](#)